

메시지 6  
단체적인 전투원인 신부

성경: 엡 6:10-20

I.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신부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라는 것을 제시한다.

- A.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기는 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거처가 될 때,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거처는 디르사만큼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 사랑스럽다. 그러나 원수에게는 깃발을 든 군대만큼 두렵다 — 아 6:4.
1. 깃발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표시하기도 한다. 두려운 군대는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두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.
  2.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(계 2:7, 11, 17, 26, 3:5, 12, 21). 결국 이기는 이들은 단체적인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이다(계 19:7-9). 결혼식 후에 이 신부는 군대가 되어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싸워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패배시킬 것이다(계 19:11-21).
- B.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으로서,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— 창 1:26.
- C.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갈망이 만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, 하나님의 원수 또한 패배당해야 한다. 이것을 위해 교회는 전투원이 되어야 한다.
- D.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,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,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 — 엡 4:1, 5:2, 8, 6:10-11.

II. 천년왕국 동안의 예수님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신부, 곧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이 이기는 이들이다 — 계 19:7-9, 20:4, 6.

- A.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(계 19:7-9, 21:2). 궁극적으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형상을 이룬 놀라운 솔람미가 될 것이다. 솔람미는 솔로몬의 복사판으로서, 그리스도의 배필이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 주는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상징이다(아 6:13, 계 21:2, 9-10, 22:17상).
- B. 솔람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춤추는 두 군대 혹은 두 진영(히브리어로 '마하나임')에 비유된다.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 곧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본 후에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고,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신의 소유를 '두 군대'로 나누었다 — 아 6:13, 창 32:1-10.
1. 두 군대의 영적인 의미는, 두 군대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,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 따라 넉넉히 이겨 '대승을 거둔다는 것'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다 — 롬 8:37, 12:5, 신 32:30, 전 4:9-12.
  2. 하나님은 그들 자신 안에서 강한 이들을 원하지 않으신다. 그분은 연약한 이들, 더 약한 이들,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원하신다. 이기는 이들로 여겨지는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더 약한 이들일 것이다 — 고전 1:26-28, 고후 12:9-10, 13:3-5, 아 8:6.
  3.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인 한 백성, 곧 뺏은 머리(아 1:10상)로 상징되듯이 그분께 복종하고,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목(아 1:10하)으로 상징되듯이 유연한 의지로 그분께 순종하는 한 백성이 필요하다.
  4. 우리는 어떻게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할지를 고려할 때,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들로 만드시는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— 롬 9:16, 21-23.

**Ⅲ. 영적 전쟁이 필수적인 것은 사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— 엡 1:5, 9, 11, 마 6:10.**

- A. 하나님의 의도, 하나님의 의지 이외에 또 다른 의도, 또 다른 의지가 있는데, 이는 사탄의 의지가 신성한 의지에 대항하기 때문이다 — 사 14:12-14.
- B. 모든 전쟁의 근원은 사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충돌에 있다.
- C.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의 전쟁이다. 천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— 마 12:26, 28, 계 12:11.
- D. 우리는 진리에 따라 은혜로 행하고, 사랑과 빛 안에서 살며, 사탄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 싸운다 — 엡 4:1, 5:2, 8, 6:12.

**Ⅳ.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려면,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힌 큰 능력, 곧 공중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위에 앉게 한 큰 능력으로 굳세어져야 한다 — 엡 6:10, 1:19-22.**

- A.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.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만 싸울 수 있다.
- B. 굳세어지라는 명령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.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굳세어지려면,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강해야 하고 사용되어야 한다 — 아 4:4, 7:4.

**V. 교회와 사탄 사이의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세력들 사이의 전투이다 — 엡 6:12.**

- A.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반역한 천사들이다.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탄을 따랐고,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— 골 1:13, 단 10:20.
- B. 우리는 우리의 전쟁이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, 곧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.

**Ⅵ. 영적 전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. 그것은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문제이다 — 엡 6:13.**

- A.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며, 믿는 이들은 함께 이 단체적인 전투원을 구성한다. 단체적으로 한 군대로 편성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울 수 있을 것이다.
- B. 하나님의 전략은 교회를 원수와 대항해 싸우는 그분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며,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다.
- C.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을 위한 것이지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. 오직 단체적인 전투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입을 수 있다.

**Ⅶ.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한다 — 엡 6:11.**

- A. 우리의 생활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의 온 존재를 강하게 하는 허리띠이시다 — 엡 6:14상.
- B. 우리의 양심을 덮고 사탄의 비난에서 우리를 지켜 주는 의의 가슴받이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이다 — 엡 6:14하, 고전 1:30.
- C.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한 화평이시다. 이 화평은 우리가 원수에게 대항해 설 수 있게 하는 견고한 기초이다 — 엡 2:15, 6:15.
- D. 믿음은 원수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이다. 그리스도는 그러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— 엡 6:16, 히 12:2.

- E. 우리의 생각을 덮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 — 엡 6:17상, 요 16:33.
- F.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의 검은 공격 무기이며, 우리는 이 무기로 원수를 산산조각 낸다 — 엡 6:17하.
- G.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적용하는 유일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며, 각 전투 장비를 우리에게 실지적으로 유용하게 한다 — 엡 6:18.

**VIII.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함으로 우리는 마귀의 계략, 악한 책략에 대항해 설 수 있다 — 엡 6:11, 13-14.**

- A. 그리스도와 함께 앓는 것은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이고, 그분의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며, 그분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— 엡 2:6, 4:1, 5:2, 8, 6:11, 13-14.
- B. 원수에게 대항해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 있는 것이다.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.

**IX. 우리 모두는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전쟁터에 있음을 보아야 한다.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공중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.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산시켜서, 그리스도께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위해 다시 오실 수 있게 할 수 있다.**